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

조혜영¹, 오세원^{2*}

¹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²숭실대학교 학사팀

The Effect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on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Satisfaction, Importance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Hyeyoung Jo¹, Sewon Oh^{2*}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²Academic Affairs Team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교 행정직원 105명이다. SPSS 23.0과 AMOS 25.0으로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알아보고,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및 특성화 정책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와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점으로 보면,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과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인식도와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직원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가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만큼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학차원과 정부차원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the administrative staff of universities regarding specialized projects on the career exploration of current students. The study also sought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satisfac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specialization policy of the univers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5 administrative employees of four-year national universities.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and AMOS 25.0 software.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was studi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a structural equation was us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ructural model.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and th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the specialization policy and the career exploration for the current students. Second, the suitability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the structural model was found to be good. An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areer exploration for the current students of the universities revealed that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and satisfaction with the specialized policy did not affect career exploration, while perception and import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Next,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the specialization polic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and importance of the specialization policy completely mediated the process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thereby influencing career exploration for the current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 would help in establishing more effective policies. Also, as the perception regarding the specialization policy and its import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 the career exploration for the current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proposed ways to strengthen the above at the university and government levels.

Keywords :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Specialization Policy, Perception, Satisfaction, Importance, Structural Equation (Mediated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ewon Oh(Soongsil Univ.)

email: 7@ssu.ac.kr

Received October 14, 2022

Revised November 17,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3

1. 서론

“2030년까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약 50%가 사라질 것” 미래 설계를 위한 준비 시기인 대학생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생은 진로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이다[1]. 때문에 이 시기에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학에서의 진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는다[2]. 실제로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미흡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4]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대학생활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 학사경고로 이어지게 된다.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은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6].

마찬가지로 학령인구의 급감과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은 불안정한 재정 건전성 등을 야기한다.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재정 운용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 감축 정책은 불가피하게 업무의 과중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어쩌면 고등교육의 위기상황과 급격한 기술변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세계를 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구체성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대학의 구성원 모두 재학생들의 진로탐색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은 교육 서비스의 주체자인 학생과 제공자인 교원 그리고 행정직원이다[7].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대학 평가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의 업무는 과거에 비해 매우 전문적이며, 복잡해지면서 이들이 인식하는 대학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해졌다. 행정직원의 역량은 대학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다[8].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원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10]. 행정직원이 인식하는 대학정책과 역할은 대학의 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대학 행정직원이 지각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은 취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사회

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태도와 참여는 재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주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11].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들은 특성화 정책에 대해 만족도와 중요도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2].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수와 동료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3]와 교수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14,15]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도적인 의식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적인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16].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볼 때, 결국, 대학 구성원 모두 재학생의 진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 구성원 가운데 대학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행정직원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재학생들의 참여동기를 이끌어 진로탐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행정직원들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선행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태도로 혁신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넓게 본다면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결국 재학생을 위한 진로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행정직원의 인식만을 제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대학 특성화 정책을 통해 대학의 목적과 이념, 특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로 특화 모형을 창출한 바 있다[17]. 이렇게 전공 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지원 사업의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특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대학 특성화 사업(CK),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산학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18]. 이들 사업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촉발된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자체의 전통적인 강점 분야(또는 학과)와 대학이 속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산업과 연

계하여 학과를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대학 특성화 사업의 취지이다. 이를 위해 대학 특성화 사업은 학문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2,025개 특성화 사업이 선정되었고, 수도권에 601개 전공(분야)과 비수도권 1,424개 전공(분야)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지원금액은 총 1조 519억원에 달한다[19].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규모를 2020년 6,951억원에서 2022년 7,950억원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20].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성화 분야로의 정원조정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학사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특성화 사업의 종료 이후, 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인증평가 등을 통해 발전계획에 기반한 자체 특성화 사업을 유도했으며, 많은 대학들이 대학 자체의 강점을 강화하거나,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학과를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즉, 대학의 특성화 사업 정책을 통해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등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추진 전략 가운데 전략적 특성화 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협력 및 취창업 혁신 지원의 추진과제로서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의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1,089억원에서 2022년 1,130억원으로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고등교육에서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대학 정책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를 알아보려 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23].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보다 실효성을 갖춘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3,24], 더 나아가 만족도와 중요도를 함께 분석하는 연구의 시도는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25]. 이렇게 대학 구성원들의 만족도, 중요도, 인식도 등의 측정은 교육 성과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26].

한편, 조직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강조된다[27]. 직무에 대한 열의가 높을수록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여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며[28]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29]. 때문에 대학 행정직원 역시 특

성화 사업에 대한 직무의 관심과 열정은 혁신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조직에 대한 주도적인 의식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적인 행동을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직무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은 결국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들의 직무만족과 관련한 연구들 [10,11]이 다수였고,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 모형 및 진단 지표 개발[30,31]과 같이 행정직원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행정직원이 지각하는 대학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중요도 등은 대학의 소비 주체인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와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와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국 4년제 202개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직원 가운데 연구 동의함에 체코한 50개 대학의 총 105명이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대학 규모, 권역별 소재지, 나이,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5)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76	72.4
	Female	29	27.6
University Size	Medium(less than 5,000 people)	15	14.3
	Large(over 5,000 people)	90	85.7
Location	Metropolitan	50	47.6
	Chungcheong	33	31.4
	Daegu Gyeongbuk Gangwon	3	2.9
	Busan Ulsan Gyeongnam	4	3.8
	Honam Jeju	15	14.3
Age	under 30 years	18	17.1
	30-39	31	29.5
	40-49	26	24.8
	over 50 years	30	28.6
	less than 5 years	33	31.4
Tenure	5-10	21	20.0
	11-15	20	19.0
	16-19	2	1.9
	more than 20 years	29	27.6

성별은 남자 76명(72.4%), 여자 29명(27.6%)으로 남자의 응답률이 더 많았다. 대학의 규모는 대형(5,000명 이상) 90명(85.7%), 중형(5,000명 미만) 15명(14.3%)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소재지는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50명(47.6%)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33명(31.4%),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15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보면, 30-39세 31명(29.5%)으로 가장 많이 참여 하였고, 50세 이상 30명(28.6%), 40-49세 26명(24.8%)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은 5년 미만이 33명(31.4%)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20년 이상 29명(27.6%), 5-10년 21명(20.0%), 11-15년 20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본 연구에서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단일문항으로 알아보았다. 문항의 내용은 '특성화 사업이 대학 발전을 견인한다고 본다'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해석한다.

2.2.2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본 연구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는 6개 하위요인(비전목표, 교수활동,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행정서비스, 특성화 사업성과)이다.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화 한 대학 특성화 만족도 측정도구[23]를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예: 인식도: (비전과 목표)'소속 대학 특성화의 교육비전을 알고 있다', (교수활동)'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교수진은 강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본다', (교육과정)'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해 개설되는 교과목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시설 및 환경)'대학특성화 사업을 통해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행정서비스)'특성화사업 이후 장학금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특성화사업 성과)'특성화사업으로 취업에 관련된 실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본다' / 만족도: (비전과 목표)'소속 대학 특성화의 교육비전에 만족한다', (교수활동)'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한 교수진의 강의 개선에 만족한다', (교육과정)'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한 개설되는 교과목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교육시설 및 환경)'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교육시설이 갖춰진 것에 만족한다', (행정서비스)'특성화사업 이후 장학금의 종류가 증가하는 것에 만족한다', (특성화사업 성과)'특성화사업으로 취업에 관련된 실무능력이 향상된 것에 만족한다' / 중요도: (비전과 목표)'소속 대학 특성화에 교육비전은 중요하다', (교수활동)'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교수진은 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과정)'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개설되는 교과목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시설 및 환경)'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행정서비스)'특성화사업 이후 장학금의 종류가 증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성화사업 성과)'특성화사업으로 취업에 관련된 실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중요하다'. 원 도구는 총 42문항[23]이나,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에서 특성화 사업 성과 문항 가운데 '특성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의 문항은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로 수정·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41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총점은 .98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비전목표 .869, 교수활동 .957, 교육과정 .945, 교육시설 및 환경 .858, 행정서비스 .920, 특성화 사업성과 .952로 나타났다.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총점은 .98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비전목표 .918, 교수활동 .975, 교육과정 .959, 교육시설 및 환경 .885, 행정서비스 .953, 특성화 사업성과 .968로 나타났다.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총점은 .97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비전목표 .892, 교수활동 .931, 교육과

정 .929, 교육시설 및 환경 .862, 행정서비스 .887, 특성화 사업성과 .918로 나타났다.

2.2.3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본 연구에서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32]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정·보완한 문항으로[33]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대상이 대학 행정직원임을 감안하여 원 도구의 의미를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하였다(예 '나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나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등). 총 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이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38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연구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of research tools

		Cronbach's α	iteam
Perception	Career Exploration	.938	9
	Total	.981	41
	Vision Goals	.869	5
	Teaching Activities	.957	9
	Curriculum	.945	9
Satisfaction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858	4
	Administrative Services	.920	6
	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952	8
	Total	.989	41
	Vision Goals	.918	5
Importance	Teaching Activities	.975	9
	Curriculum	.959	9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885	4
	Administrative Services	.953	6
	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968	8
	Total	.973	41
	Vision Goals	.892	5
	Teaching Activities	.931	9
	Curriculum	.929	9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862	4
	Administrative Services	.887	6
	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918	8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행하기 앞서, 설문문항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받았다. 특히,

연구대상이 대학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항을 연구대상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피드백 받았다. 문항에 대해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문항을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로 알아보기 때문에 3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를 재검토받았다.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이버 설문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국 202개 4년제 대학교에 협조요청과 URL을 배포하였다. 연구대상의 모집은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편의표집으로 샘플링 하였다. 동의함에 체크한 총 107부가 회수되었지만, 대학규모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규모 500명 이하로 응답한 2부를 제외하였다. 50개 대학의 총 105부(98.1%)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은 빈도(%)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분석하였고,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알아보았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로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로 알아보았다. 넷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통해 알아보았고, 집중타당성의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이하 C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plained, 이하 AVE)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알아보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X2값은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므로 NFI, IFI, TLI, CFI .90 이상의 기준[34]과 RMSEA .08미만, SRMR .05미만 기준[35]으로 알아보았다.

2.5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Fig. 1에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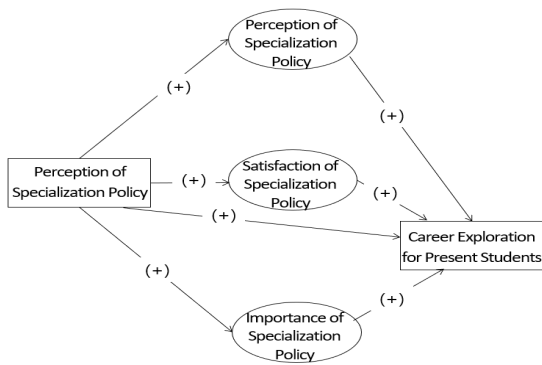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Fig. 1 연구모형의 이론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적 관계가 있다.

- 가설1.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과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가설2.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가설3.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가설4.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연구결과

3.1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와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간의 관계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향성을 보면,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평균은 3.92점(SD=1.08)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전체 평균 점수는 3.67점(SD=.74)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비전목표 3.76점(SD=.81), 교수활동 3.57점(SD=.85), 교육과정 3.66점(SD=.79), 교육시설 및 환경 3.72점(SD=.86), 행정서비스 3.74점(SD=.84), 특성화 사업성과 3.65점(SD=.85)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3.64점(SD=.87)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비전목표 3.75점(SD=.82), 교수활동 3.51점(SD=1.00), 교육과정 3.65점(SD=.86), 교육시설 및 환경 3.71점(SD=.93), 행정서비스 3.72점(SD=.93), 특성화 사업성과 3.63점(SD=.97)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4.34점(SD=.5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비전목표 4.25점(SD=.61), 교수활동 4.34점(SD=.60), 교육과정 4.41점(SD=.57), 교육시설 및 환경 4.40점(SD=.57), 행정서비스 4.27점(SD=.60), 특성화 사업성과 4.35점(SD=.55)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의 평균은 3.47점(SD=.97)으로 나타났다.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의 왜도는 -1.012, 첨도는 .456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의 왜도는 -1.034부터 -.425범위이며, 첨도는 -.382부터 .778범위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왜도는 -.731부터 -.491범위이며, 첨도는 -.685부터 .518범위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왜도는 -.945부터 -.610범위이며, 첨도는 -.594부터 .667범위로 나타났다.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의 왜도는 -.536, 첨도는 -.341로 나타나 연구변인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1.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3.921.08		-1.012	.456
2.Perception	3.67	.74	-.446	-.250
2-1.Vision Goals	3.76	.81	-1.034	.778
2-2.Teaching Activities	3.57	.85	-.525	-.124
2-3.Curriculum	3.66	.79	-.425	-.076
2-4.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3.72	.86	-.575	.097
2-5.Administrative Services	3.74	.84	-.554	-.382
2-6.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3.65	.85	-.756	.320
3.Satisfaction	3.64	.87	-.612	-.156
3-1.Vision Goals	3.75	.82	-.629	-.307
3-2. Teaching Activities	3.51	1.00	-.582	-.432
3-3.Curriculum	3.65	.86	-.731	.518
3-4.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3.71	.93	-.726	.163
3-5.Administrative Services	3.72	.93	-.491	-.685
3-6.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3.63	.97	-.679	.017
4.Importance	4.34	.50	-.658	-.056
4-1.Vision Goals	4.25	.61	-.706	.205
4-2.Teaching Activities	4.34	.60	-.945	.667
4-3.Curriculum	4.41	.57	-.826	-.140
4-4.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4.40	.57	-.610	-.594
4-5.Administrative Services	4.27	.60	-.658	.245
4-6.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4.35	.55	-.684	.019
5.Career Exploration	3.47	.97	-.536	-.341

Table 4.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1	2	2-1	2-2	2-3	2-4	2-5	2-6	3	3-1	3-2	3-3	3-4	3-5	3-6	4	4-1	4-2	4-3	4-4	4-5	4-6	5	
1.																							
2.	.503***	1																					
2-1.	.291**	.598***	1																				
2-2.	.503***	.936***	.513***	1																			
2-3.	.508***	.958***	.491**	.887***	1																		
2-4.	.429**	.881**	.371**	.758***	.847***	1																	
2-5.	.366**	.901***	.437***	.787***	.846***	.856***	1																
2-6.	.486***	.940***	.470***	.852***	.886***	.836***	.819***	1															
3.	.478**	.923***	.452***	.858***	.896***	.878***	.828***	.892***	1														
3-1.	.554***	.883***	.570***	.836***	.850***	.770***	.752***	.827***	.915***	1													
3-2.	.427**	.869***	.390***	.850***	.843***	.805***	.768***	.834***	.947***	.855***	1												
3-3.	.492***	.904***	.466***	.860***	.903***	.815***	.764***	.865***	.955***	.894***	.901***	1											
3-4.	.384**	.852***	.377***	.744***	.835***	.905***	.807***	.813***	.932***	.803***	.834***	.859***	1										
3-5.	.358***	.807***	.331**	.713***	.765***	.850***	.832***	.756***	.907***	.760***	.802***	.799***	.909***	1									
3-6.	.479**	.873***	.436***	.783***	.837***	.831***	.767***	.893***	.957***	.855***	.862***	.885***	.896***	.878***	1								
4.	.429***	.397***	.183	.266**	.401**	.483**	.417**	.390**	.479**	.400**	.437**	.415**	.467**	.525**	.465**	1							
4-1.	.395***	.437***	.161	.322**	.464**	.491**	.435**	.437**	.493**	.459**	.439**	.427**	.508**	.492**	.491**	.722***	1						
4-2.	.404***	.263**	.082	.169	.279**	.356**	.239*	.270**	.371**	.293**	.355**	.313**	.357**	.397**	.369**	.888**	.742**	1					
4-3.	.304**	.287**	.198*	.168	.255**	.359**	.354**	.264**	.347**	.264**	.324**	.266**	.360**	.432**	.329**	.909**	.482**	.729**	1				
4-4.	.253**	.284**	.170	.147	.303**	.361**	.326**	.260**	.317**	.226*	.291**	.259**	.345**	.389**	.296**	.832**	.491**	.627**	.832**	1			
4-5.	.425**	.435**	.177	.315**	.439**	.485**	.480**	.421**	.483**	.421**	.421**	.458**	.443**	.539**	.451**	.821**	.456**	.565**	.755**	.697**	1		
4-6.	.398**	.391**	.178	.279**	.395**	.471**	.376**	.395**	.472**	.418**	.426**	.438**	.425**	.473**	.470**	.911**	.575**	.760**	.796**	.712**	.759**	1	
5.	.242**	.596***	.466***	.531**	.547**	.501**	.563**	.543**	.550**	.496**	.516**	.470**	.565**	.548**	.530**	.335**	.250*	.202*	.419**	.364**	.291**	.227*	1

*** $p < .01$, ** $p < .05$
 **1.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2.Perception(2-1.Vision Goals, 2-2.Teaching Activities, 2-3.Curriculum, 2-4.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2-5.Administrative Services, 2-6.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3.Satisfaction(3-1.Vision Goals, 3-2.Teaching Activities, 3-3.Curriculum, 3-4.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3-5.Administrative Services, 3-6.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4.Importance(4-1.Vision Goals, 4-2.Teaching Activities, 4-3.Curriculum, 4-4.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4-5.Administrative Services, 4-6.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5.Career Exploration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과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로 알아보았다.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r=.242,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총점($r=.596, p<.01$)과 하위요인인 비전목표($r=.466, p<.01$), 교수활동($r=.531, p<.01$), 교육과정($r=.547, p<.01$), 교육시설 및 환경($r=.501, p<.01$), 행정서비스($r=.563, p<.01$), 특성화 사업성과($r=.543,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총점($r=.550, p<.01$)과 하위요인인 비전목표($r=.496, p<.01$), 교수활동($r=.516, p<.01$), 교육과정($r=.470, p<.01$), 교육시설 및 환경($r=.565, p<.01$), 행정서비스($r=.548, p<.01$), 특성화 사업성과($r=.530,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총점($r=.335, p<.01$)과 하위요인인 비전목표($r=.250, p<.05$), 교수활동($r=.202, p<.05$), 교육과정($r=.419, p<.01$), 교육시설 및 환경($r=.364, p<.01$), 행정서비스($r=.291, p<.01$), 특성화 사업성과($r=.227,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참조).

3.2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와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간의 구조적 관계

3.2.1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인 특성화 정책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가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CFA를 통해 알아보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값은 502.332($p=.000, X2/df=3.806$)로 나타났다며, NFI=.913, IFI=.955, TLI=.931, CFI=.954로 모두 .90이상으로 기준[34]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MSEA(L0-HI)는 .064(.049-.080), SRMR은 .0291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35]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참조).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 (L0-HI)	SRMR
502.332***	132	3.806	.913	.955	.931	.954	.064 (0.049-.080)	.0291

*** $p < .001$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의 비전목표($\beta=.498$), 교수활동($\beta=.905$), 교육과정($\beta=.953$), 교육시설 및 환경($\beta=.900$), 행정서비스($\beta=.885$), 특성화 사업성과($\beta=.934$)

는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비전목표($\beta=.908$), 교수활동($\beta=.924$), 교육과정($\beta=.948$), 교육시설 및 환경($\beta=.926$), 행정서비스($\beta=.890$), 특성화 사업성과($\beta=.945$)는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의 비전목표($\beta=.629$), 교수활동($\beta=.809$), 교육과정($\beta=.908$), 교육시설 및 환경($\beta=.839$), 행정서비스($\beta=.816$), 특성화 사업성과($\beta=.895$)는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의 개념신뢰도(CCR)는 .960부터 .977범위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AVE)은 .807부터 .875범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6.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path	B	β	S.E.	C.R. (t)	p	CCR	AVE
Vision Goals	1.000	.498					
Teaching Activities	1.890	.905	.339	5.580	***		
Curriculum	1.864	.953	.328	5.685	***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1.899	.900	.341	5.568	***	.960	.807
Administrative Services	1.826	.885	.330	5.534	***		
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1.965	.934	.348	5.645	***		
Vision Goals	1.000	.908					
Teaching Activities	1.233	.924	.076	16.266	***		
Curriculum	1.089	.948	.062	17.662	***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1.149	.926	.070	16.392	***	.977	.875
Administrative Services	1.111	.890	.076	14.623	***		
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1.223	.945	.070	17.463	***		
Vision Goals	1.000	.629					
Teaching Activities	1.277	.809	.186	6.874	***		
Curriculum	1.344	.908	.180	7.455	***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1.253	.839	.177	7.062	***	.972	.854
Administrative Services	1.289	.816	.186	6.922	***		
Specialized Projects Performance	1.280	.895	.173	7.386	***		

*** $p < .001$

Table 6에 제시한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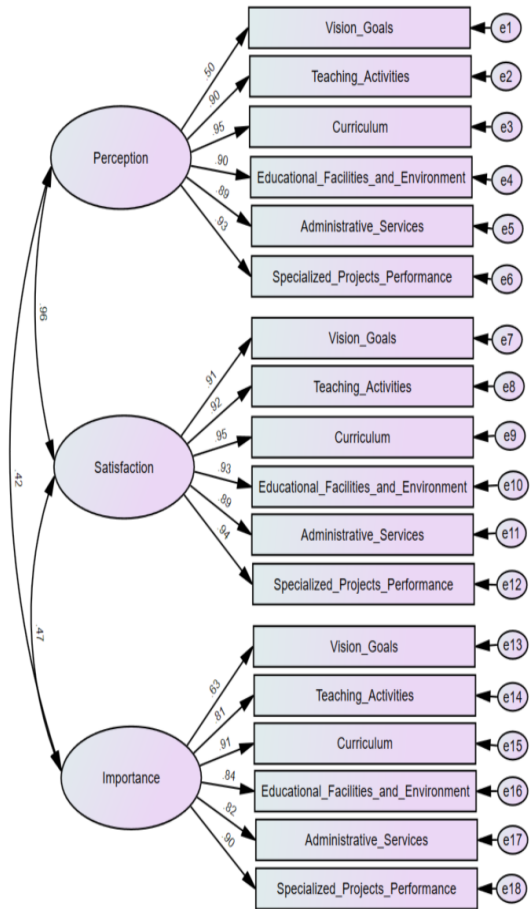


Fig. 2. Measurement Model

3.2.2 구조모형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과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으로 알아보았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값은 590.554($p=.000$, $X2/df=3.645$)로 나타났으며, $NFI=.904$, $IFI=.941$, $TLI=.912$, $CFI=.940$ 로 나타났고, $RMSEA(LO-HI)$ 는 .059(.046-.073), $SRMR$ 은 .0270으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7 참조).

Table 7.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 (LO-HI)	SRMR
590.554***	164	3.645	.904	.941	.912	.940	.059 (.046-.073)	.0270

*** $p < .001$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보면,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beta=.512, p<.001$), 만족도($\beta=.489, p<.001$), 중요도($\beta=.412, p<.001$)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beta=-.138, p>.05$)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beta=.888, p<.05$)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beta=-.329,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beta=.209, p<.05$)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Table 8.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path	B	β	S.E.	C.R.(t)	p
Perception of Specialization Policy	.195	.512	.046	4.200	***
Satisfaction of Specialization Policy	.338	.489	.062	5.461	***
Importance of Specialization Policy	.145	.412	.037	3.898	***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125	-.138	.088	-1.417	.156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2.100	.888	1.062	1.977	.048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428	-.329	.556	-.771	.441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534	.209	.268	1.992	.046
Vision Goals	1.000	.505			
Teaching Activities	1.871	.909	.329	5.692	***
Curriculum	1.839	.954	.317	5.795	***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1.864	.896	.329	5.660	***
Administrative Services	1.795	.883	.319	5.627	***
Specialized Projects	1.938	.935	.337	5.753	***
Performance					
Vision Goals	1.000	.627			
Teaching Activities	1.233	.924	.076	16.270	***
Curriculum	1.089	.948	.062	17.661	***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1.149	.926	.070	16.377	***
Administrative Services	1.111	.890	.076	14.613	***
Specialized Projects	1.223	.945	.070	17.443	***
Performance					
Vision Goals	1.000	.809	.187	6.853	***
Teaching Activities	1.355	.912	.182	7.447	***
Curriculum	1.259	.841	.179	7.044	***
Educatio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					

path	B	β	S.E.	C.R.(t)	p
Administrative Services	1.292	.816	.187	6.894	***
Specialized Projects	1.277	.891	.174	7.331	***
Performance					

*** $p<.001$

3.3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Table 9에 제시하였다.

Table 9. The total effect of degradation resul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erception of Specialization Policy	.512*		.512*
Satisfaction of Specialization Policy	.489*		.489*
Importance of Specialization Policy	.412*		.412*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138	.380*	.242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888*		.888*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329		-.329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209*		.209*

* $p<.05$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bootstrap)으로 95% 신뢰구간에서 분석하였다.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은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beta=.512, p<.05$), 만족도($\beta=.489, p<.05$), 중요도($\beta=.412, p<.05$)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직접적($\beta=-.138, p>.05$)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beta=.380, p<.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beta=.888, p<.05$)와 중요도($\beta=.209, p<.05$)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만족도($\beta=-.329, p>.05$)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

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9에 제시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Fig. 3에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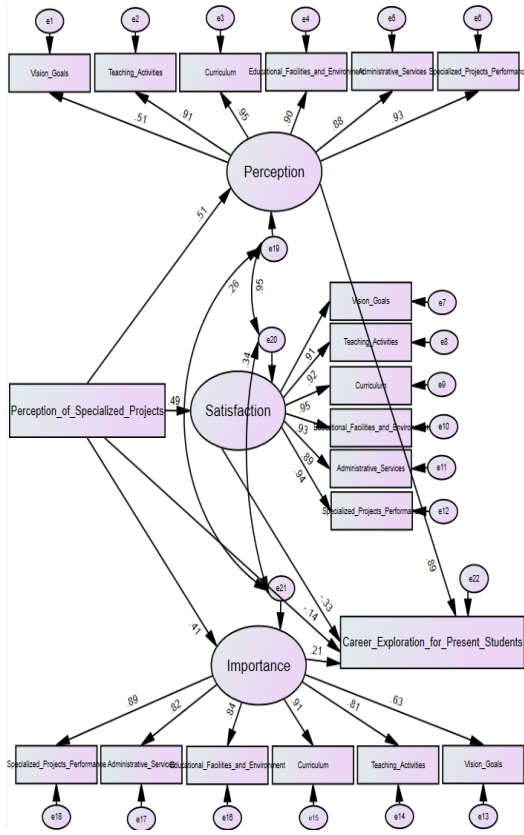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이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직원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정규성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 인식도,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행정직원이 지각하는 특성화 정책에 대한 교수활동에 대한 인식

도(M=3.57)와 만족도(M=3.51)가 중요도(M=4.3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평균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만족도 보다 대체로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2]. 교수활동 만족도의 경우 조사 항목의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수요인은 진로탐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36], 교수자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발표, 실습 등 학습자의 수행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전공에 대한 유능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교수자 스스로 전공 교과에 혁신교수법을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만[38-40] 대학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때, 대학 차원에서 교수활동에 대한 매뉴얼 또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 행정직원의 특성화 사업 인식과 특성화 정책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전체 평균점수 및 하위요인, 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미비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주인의식과 직무열의 및 만족과 혁신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힌 연구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16]. 즉, 본 연구에서의 연구변인들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학 행정직원들이 특성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대학의 방향과 경쟁력을 결정한다[8-10]고 보는 맥락과 함께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점으로 보면, 특성화 사업 인식과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 인식은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행정직원이 지각하는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 수준에 따라 재학생을 위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에 제시되는 매개효과 분석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셋째, 특성화 사업 인식이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재학생들의 진로가 중요해진 대학에서 행정직원들의 혁신행동을 이와 같은 맥

락으로 볼 때, 조직에 대한 주도적인 의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적인 행동을 이끈다[16]는 맥락과 함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가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학차원과 정부차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행정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대학 정책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혁신행동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외적 요인인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 승진, 복리후생, 급여 등은 직무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9].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볼 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기 위해 소속감을 함양해 줄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행정직원이 대학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대학도서관 핵심 인프라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서직원수(1,000명당 1명의 직원을 기준), 도서관 예산, 자료구입비, 전자자료 구입비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41]. 따라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시, 충분한 전문 행정인력 수를 지표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대학직원 수를 지표화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대학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학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행정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의 행정직원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9-11] 이들의 전문성을 위한 인력양성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은 평가준비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대학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여 실행하는 등 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줄 필요가 제기된다.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교수-학습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정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양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42]. 이를 위해서는 행정 부문의 역할 확대와 전반적인 업무에 전문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재학생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하며 우수사례를 직접 발굴하는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 직무강화교육을 위한 비용을 상향 조정한다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대학의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기획하고 설계하며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대학 기능에 따른 대학 특성화 정책은 역할의 분화가 가능하다[17]. 즉, 대학 고유의 특성과 목표, 비전, 전략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대학 특성화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강점에 근거한 기능 유형별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행정직원은 대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성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지원은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CK),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산학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18] 지속성, 안정성보다 특수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단기간의 특수목적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산업융합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쏠림 현상은 국가 균형 발전 저해 및 지역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학 특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은 더 이상 대학만의 문제로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대학 특성화 사업의 지역연계학과 비율이 41%에 불과한 것은 [19] 그 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 유출을 걱정하는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대학별 특성화 학과의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특성화 정책의 주요 쟁점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특성화 사업 인식 문항은 단일문항으로 분석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대학 특성화 사업 및 정책은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행정직원[7] 모두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대학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한다면 구성원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

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은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편의표집으로 샘플링 하였다. 이에 한정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본다. 추후,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을 통한 모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 N. Drier, "Career information for youth in transition: The need, systems, and model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29, No.2, pp.135-143, December 1980. DOI: <https://doi.org/10.1002/j.2164-585X.1980.tb01032.x>
- [2] S. Guay, V. Billette, A. Marchand, "Exploring the links betwee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cial support: Process and potential research avenu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9, No.3, pp.327-338, June 2006. DOI: <https://dx.doi.org/10.1002/jts.20124>
- [3] R. Babineaux, J. Krumboltz, Fail fast, fail often: How losing can help you win, p.1-193, Penguin Group, 2013, pp.1-193.
- [4] R. M. Ryan, E. L. Deci,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002, <https://www.elaborer.org/cours/A16/lectures/Ryan2004.pdf> (accessed October 7, 2022)
- [5] H. Y. Jo, B. R. Lee, M. J. Jo, "Valid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achievement programs for underachiever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learning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daptive capac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1, pp.113-124, June 2021.
- [6] B. E. Fenning, L. N. May,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n A: Examining the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in college students'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reer planning",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Vol.16, No.4, pp.635-650, June 2013. DOI: <https://doi.org/10.1007/s11218-013-9228-4>
- [7] M. H. Kim, J. Y. Park, Educational administration & school management, p.1-478, Hyungseul Publisher, 2001, pp.1-478.
- [8] J. J. Duderstadt,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p.1-358,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1-358.
- [9] S. H. Kim, Y. H. Cho, "The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aff's Job satisfaction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8, No.3, pp.79-106, August 2010.
- [10] J. Y. Jung, H. R. Yo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private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understanding of school,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7, No.1, pp.1-19, March 2019. DOI: <https://doi.org/10.22327/kei.2019.37.1.001>
- [11] H. S. Kim, D. W. Seo, B. C. Lee, Y. S. Yoon, K. K. Min, "The effect of specialized project for the university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2015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rogram and Abstract*, Vol.8, pp.456-457, August 2015.
- [12] M. J. Park,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CK-I: Based on analysi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0, pp.589-613, September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10.589>
- [13] S. H. Paik, W. J. Shim, "Vocationa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in comparison to those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8, No.2, pp.315-338, June 2017. DOI: <https://doi.org/10.15753/aje.2017.06.18.2.315>
- [14] H. W. Lee, J. H. Kwon, J. H. Kim, "Analysis of the influences and meanings of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5, No.4, pp.27-55,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26857/JLLS.2019.11.15.4.27>
- [15] S. W. Lim, H. S. Jung, M. S. Song,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4, pp.386-395, April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4.386>
- [16] D. S. Chung,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nnovative behavior: Focus on job satisfaction and job engagement", *Asia 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0, No.1, pp.25-38, March 2019. DOI: <https://doi.org/10.32599/apib.10.1.201903.25>
- [17] M. Shattock, "Policy drivers in UK higher educ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side out', 'outside in' and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Higher Education Quarterly*, Vol.60, No.2, pp.130-140, March 2006. DOI: <https://doi.org/10.1111/j.1468-2273.2006.00313.x>
- [18] Ministry of Education, The Direction of Changes i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Draft), Ministry of Education, 201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6376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accessed October 7, 2022)
- [19]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IV(Education and Job Fields): Focusing on university-local employment

- linkages and university-job creation/retention, p.15-33,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pp.1-117.
- [20]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Office, 2022 Financial Assistance Plan for Higher Education (Draft), Ministry of Education, 2021,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boardSeq=8988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3&opType=N> (accessed October 7, 2022).
- [21] Ministry of Education, 2018 University Basic Competence Assessment: Handbook Briefing Session Resources, p.10-30, Ministry of Education, 2018, pp.1-193.
- [22] Ministry of Education, 2021 University Basic Competence Assessment: Handbook Draft Briefing Session, p.12-18, Ministry of Education, 2018, pp.1-132.
- [23] S. M. Kim, C.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K satisfaction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4, No.4, pp.41-60, December 2016.
- [24] B. D. Ruben, Quality in higher education, p.1-340, Transaction Publishers, 1995, pp.1-340.
- [25] Noel-Levitz, 2002 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Priorities Report, p.3, Noel-Levitz, 2002, pp.1-5.
- [26] J. L. Fitzpatrick, J. R. Sanders, B. R. Worthen,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4th Ed), p.490-497, Pearson Education, 2011, pp.1-544.
- [27] S. Bharadwaj, A. Menon, "Making innovation happen in organizations: Individual creativity mechanisms, organizational creativity mechanisms or both?",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17, No.6, pp.424-434, November 2000. DOI: [https://doi.org/10.1016/S0737-6782\(00\)00057-6](https://doi.org/10.1016/S0737-6782(00)00057-6)
- [28] J. K. Harter, F. L. Schmidt, T. L. Hayes, "Business-unit leve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engagement, and business outcome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7, No.2, pp.268-279, April 2002. DOI: <https://dx.doi.org/10.1037//0021-9010.87.2.268>
- [29] F. Akhtar, H. Khan, M. Rasheed, "The power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 exploratory study", *Arabian Journal of Business and ai bar A Management Review*, 9-4, 2019, <https://www.hilarispublisher.com/open-access/the-power-of-positive-psychological-capital-an-exploratory-study.pdf> (accessed October 7, 2022)
- [30] C. LEE, M. E. Kim, "Key competency modeling of the university employees and educational needs analysi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5, No.2, pp.101-121, June 2017.
- [31] S. B. LIM, "Developing web-based university administ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index to strengthen organizational capability of administrative staff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4, No.3, pp.77-105, August 2016.
- [32] E. A. Van Hooft, M. P. Born, T. W. Taris, H. van der Flier, "Predictors and outcomes of job search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situ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7, No.2, pp.133-152, October 2005. DOI: <https://dx.doi.org/10.1016/j.jvb.2004.11.005>
- [33] J. A. Noh,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Korea, pp.101, 2017.
- [34] B. M. Byrn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p.77-8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pp.1-416.
- [35] M. W. Browne,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21, No.2, pp.230-258, November 1992. DOI: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36] J. Y. Yeon, E. S. Ryu, J. K. Lee, "The effects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airline services and cruise services major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20, No.6, pp.265-289, November 2016.
- [37] D. L. Bluestein,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p.1-28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6, pp.1-280.
- [38] H. Y. Jo, "Effect of participation in flipped learning class on continuous intention to participat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er-centered flipped learning leve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6, pp.486-495, June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6.486>
- [39] H. Y. J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teaching presence, and class participation intention: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flipped learning cours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3, pp.433-446, July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13.433>
- [40] J. F. Strayer, "How learning in an inverted classroom influences cooperation, innovation and task orientation",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Vol.15, No.2, pp.171-193, July 2012. DOI: <https://dx.doi.org/10.1007/s10984-012-9108-4>
- [41] D. H. Chang, "Perceived effects and tasks of library strategic plans of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3, No.4, pp.213-230,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213>
- [42] O. R.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Job Expertise: Centered on Administrative Staffs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buk, Korea, pp.94, 2017.

조 혜 영(HyeYoung Jo)

[정회원]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혁신교수법, 종단연구

오 세 원(SeWon Oh)

[정회원]



- 1999년 2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학과 (공학석사)
- 2011년 2월 : 송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전문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송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외식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22년 9월 ~ 현재 : 송실대학교 학사팀장

<관심분야>

교육혁신, 교육과정, 교육성과